

일부 고급유흥業所에

8.8

87?
862

이행돈 貸出키로

金通運委 결정: 시설改修 구실

여신금지업종으로 지정돼온 행돈을 쓸수있고 일부 고급유흥업소들이 외국인상대관관업소라고 이름을 바꾸면 은행대출을 받아쓸수있게됐다.

7일 金通運委는 86.88대회를 앞두고 관광자유치기반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금통기

시설改修 구실

「일부 외국인정읍관광자유화」인 시설의 시설改補修자금」이란 명목으로 금통지원이가능토록 했으며이날부터시행토록했다.

金通運委의 이같은 이해적 의결에 따라 소위 基地村 주변 의 주점은행들은 서울의 외국인상대 관관000000원신점의 간판을 단 삼천자 풍림자 대하다

성과 같은 일부 고급유흥업소들이 기업에대한 일반자금대출을 동결하고있는 긴축속에서 은행돈을 합법적으로 얻어 쓸수있게됐다.

한편 金通運委는 이같은 조치를 의결하면서 이들업소카 은행대출을 신청할때는 교통부장관앞으로 內國人은 점관로출입을 시키지않는다는가서를 쓰게하고 만약 이를 거졌을 경우 1차로 경고와 함께 대출금리를 즉시 회수키로하고 두번째위반시에는 사업을 중지토록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며 이에대한 실효가 확실치않았는지간 논란을 벌였던것이 알려졌다.

◇달러당 8백84원: 환율 下落勢

한동안

잠잠하던 환율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7일 韓銀이고 시한 달러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8백84원으로 전날의 8백84원60전보다 60전이 떨어졌고, 지난 30일의 8백85원40전에 비해서는 1주일 사이에 1원40전이 내려왔다. 은행에서 사들이는 현찰 매입은 8백70원74전이다. 환율의 변동이 파격적이며 환율의 고하 떨어질 전망이다.

(사건에 의한이행 돈의 한해시세표)

韓國銀行은 이번 조치로한 5000원정도의 신규대출이나 같지않고 추산하고있다.